

재림 전 코로나 19 팬데믹의 성경적 의미: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 의도

행17:22-31

2019년 말부터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보통 팬데믹이라고 부른다. 팬데믹: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한편, 팬데믹의 우리말 대체어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사용된다.

즉 한두 나라에서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번지는 현상

초기에 예측한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또 처음에 영상 등에서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죽는 것 같은 심각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모두가 조심해야 할 전염병인 것은 확실하다.

일상생활에 큰 변화,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강요, 모임 금지, 특히 교회 예배 제한, 여행 금지, 소상공업자들 파산 상태, 자살하는 사람 급증, 9월 17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자영업자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차려짐, 참다 참다 못해 죽음을 선택한 고인을 추모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죽음이 남 일 같지 않다'는 심정을 가진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조문객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길 가던 시민들과 여야 정치인들도 띄엄띄엄 빈소를 찾았다. (*) 여기에도 집회 금지 플랭카드 등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171550001>

학교도 난리, 대학교는 2년제 비대면 수업, 2년제 대학, 2020년 학번은 자기들 동기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졸업해야 할 처지

교회의 경우, 우리도 다 모이지 못한 지 매우 오래 되었다. 15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다. 정상적으로는 1500명 정도 모일 수 있다.

교회마다 현금이 줄고 파산 상태, 교역자들 사례비, 건축비 상환, 선교 등 여러 면에서 타격

가장 큰 타격: 언론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 악한 존재로 비쳐져서 코로나 19 이후에도 과연 교회로 사람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다수 교회가 코로나 19 이후 30% 정도의 인원 감소와 현금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투표도 우편 투표, 사전 투표 독려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부정한 투표지들이 속속 나오고 그 결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득세하며 온 세상이 좌익 세상이 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재검표,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

(*) 애리조나 주 대법원이 재검표 결과를 발표하라고 선고하였다.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백신 문제: 미국도 연방 공무원들 거의 반 강제 접종 실시, 의료진들 반발

백신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 급증, 다들 쉬쉬하고 있다.

지금 추석 연휴인데도 고향에 갈 못하고 일가친척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도 맞은 사람, 맞지 않은 사람 차별, 모임도 차별,

코로나라도 걸리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 이것은 전염병이라 내 잘못이 아니다. 사회가 다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원수 취급하는 사례들

코로나 19로 인해 말 그대로 온 세상의 인정이 메말라가고 정부들은 점점 더 강압적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함

오늘은 < >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 19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팬데믹 재앙

목사들,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다. 성경에도 많은 역병들 사례가 나온다는 점이다.

(*) 성경과 팬데믹, 김지찬 교수(총신대)

전염병은 칼과 기근과 함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3대 재앙이다.

주로 구약성경, 총 82회, 신약에는 없다. 짧은 기간의 일, 구약은 적어도 1500년 기간의 역사 82회 사례들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

출애굽 사건, 성막 건축과 레위인 임명, 고라의 반역 사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 블레셋의 언약궤 약탈 사건, 다윗의 인구 조사, 유다의 멸망과 바빌론 포로 생활, 전염병 등장

특히 바빌론 포로 생활기, 총 28회, 즉 백성의 불순종과 국가의 멸망 등 위기의 때에 등장한다.

지난 130년 정도 미국 선교사들 희생 선교, 교회 부흥,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자유가 제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도, 영국도, 이스라엘도 전 세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가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코로나 19가 교회에 영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주의 진보 좌익 신학자들, 목사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이 자초한 것이고 인간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이다.

성경을 보라. 성경의 역병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역병의 대상들에게 경고를 준다.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언한다.

이번 코로나 19도 마찬가지이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간은 승승장구해 왔다.

과학의 발전, 의료 기술의 발전, 경제의 발전, 여행, 다른 데 볼 것 없이 대한민국을 보면 누구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초기,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 필리핀보다 못했다. 지금 10위

국민들 생활수준, 전 세계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 핸드폰, 명품, 먹고사는 것 등 이런 발전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을 보라. 엄청난 규모, 세계 제2 경제강국

교통의 발달, 여행의 발달, 문화의 발달

이 모든 것의 끝: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심

진화론, 뉴에이지 신비주의, 인간 예찬, 사람들의 생각에서 급격하게 하나님이 지워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970년 경제 발전과 함께 교회 안으로 기복 신앙(변영 신앙)이 밀려들어왔다. 새마을 운동 잘 살아 보세.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구호가 되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서 유명하다는 목사, 대형 교회 다수가 기복 신앙으로 부흥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특별 새벽기도

즉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이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의 경배 대상이 되고 있다.

목회의 성공: 교회 성전 크기, 목사 자동차, 사례비

엄청난 규모의 교회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

모임을 위해 필요하면 지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과시가 되면 우상이 되고 만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이런 대형 교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예배당 크기로 영적 성장이 판단될 수 없다.

교회가 커지면서 각종 운영비용 발생, 비성경적인 헌금 강요, 일천 번제, 거제 헌금 등

그런데 이런 교회들, 목사들의 배도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행한다.

미국의 유명한 은사주의 오순절 목사들

(*) 베니헨, (*) 케네스 코프랜드 자가용 비행기, (*) 케네스 하긴, (*) 타드 벤틀리 신사도 아프리카, 인도 등 못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복 신앙을 외치고는 돈을 긁어 온다.

우리나 베뢰아 성락 교회, 김기동 목사 귀신론, 아프리카 가나 등에 전달

라인하르트 본케

박옥수 구원파, 아프리카 5개국 방문, 마인드 강연하고 정상들과 시간을 보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목사들과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돈으로 오염시켰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성경에는 전 세계적인 일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향해 일어난다.

1. 노아의 홍수

창6-10장까지의 홍수 기록, 지금부터 약 4500년 전

이 당시의 상황, 창6,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가세, 사람들의 사고 체계, 문화 모든 것이 마귀의 영향

결국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 재림 시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 전 세계적인 사건

2. 바벨탑

홍수 이후 모두가 바벨탑 근처에 모여 살

창11장,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함

그 결과 언어의 혼잡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감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영, 전 세계적인 사건

사도행전 17장 설명

바울의 아테네 방문, 그리스 신들, 신전들로 가득 찬 이교도들의 도시

도시가 미신으로 가득함(22),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23)

그들이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신이 누구인지 선포함(23)

1. 하나님은 누구인가(24-25)

우주 만물의 주, 주인, 창조자이시다(24).

사람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않는다.

예배당 건물에 거하지 않는다.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지 말라. 이것을 지으면 복 받는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의 장식품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않으신다(25).

즉 무언가 사람의 손으로 꾸미는 것들로 예배하려 하지 말라.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이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해야 한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해 주신다(25).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2.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류를 온 세상으로 흩어버린 이유(26-27)

모든 사람은 한 피에서 나왔다. 아담과 이브에게서, 진화론 등 허구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

때가 단수지만 영어로는 times, 즉 하나님은 인류 역사 경영을 위해 미리 여러 개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

또 민족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이 모든 것의 목적: 이것은 그들이 흑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류 역사의 여러 전환점을 주신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1차, 2차 세계 대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거주의 한계, 바벨탑 사건이 보여 주는 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뿔뿔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긴다. 물론 이런 음모의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국제결혼 금지, 이민 금지 조항이 아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교통의 발달, 이제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

말 그대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혹은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 통해 극도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김

이번의 코로나 19

a. 기복 신앙, 바알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충고, 돈과 물질 숭배하지 말고(미신 숭배)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이블 빌리버가 되라는 충고의 짜인

b.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의 짜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멸망이 온다,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27절)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간과 지구,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 못하지 않느냐?

3. 하나님의 회개 촉구(30)

하나님이 눈감아 주시던 때가 있었다. 바벨탑 이후, 4대 문명, 그리스 로마 신화 등, 말 그대로 무지하던 때, 간과하셨다. 즉각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

이제는 때가 와서 헛된 신들을 숭배하는 그리스 사람들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난 70년 동안 참고 참고 지냈지만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신다.

4. 마지막 사인

왜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한 날을 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31). 즉 7년 환난기 공포가 온 세상에 퍼부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런 공포의 전조이다.

적그리스도의 세상, 역병, 독재, 규제를 미리 보여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신다. 사랑의 짜인

결론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다. 목사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교회들, 목사들, 성도들: 기복 신앙, 번영 신앙, 바알 숭배, 맘몬 숭배, 철저히 버리고 건물,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골3:1-2를 기억하라.

2. 믿지 않는 세상: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7년 환난기가 작정되어 있다.

3. 그러나 믿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된다.

우리들의 전성기가 온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휴거받는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